

옛절터 유물서 안양의 역사를 읽다

안양사지 출토 유물 150여 점 공개...8월 26일까지



'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 안양사지 출토 유물 특별기획전'이 8월 26일까지 안양역사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연화문수막새(사진 왼쪽)와 보상화문수막새.



고려시대 명문기와의 美 한눈에
백자연봉편 등 상징 유물도 눈길

안양문화예술재단은 8월 26일까지 안양역사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 안양사지 출토 유물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는 안양사지 개관 예정인 북학문화예술공간 조성계획에 앞서 발굴조사된 안양사지 출토 유물을 공개하는 최초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일신라후기에서 조선시대까지 150여점의 출토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안양의 지명유래로 전해지는 안양사(安養寺) 명문기와를 중심으로 고려기와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제나발판, 백자연봉편 등 사지를 상징하는 유물과 각종 도자기편 등 시기별 유물들도 함께 전시된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사가 존속했던 시기를 직접 확인하는 등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안양사지 출토 기와들의 시기별 특징과 발굴과정을 소개 안양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전시의 내용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래미 진행된다. 전시관련 영상 강의와 안내자의 상세한 설명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교과서속 문화재 이야기-기와'라는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유료교육도 진행된다.

안양문화재단은 "그동안 한정적으로만 알았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안양사지 출토 유물을 사진 공개해 안양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국립박물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031)687-0546 정혜숙 기자

클래식으로 전하는 '동체대비 사상'

해설이 있는 JK첼버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8월 11일 예술의 전당서

인고의 시간이 지나 오늘이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런데 모든 것이 막연하기만 했던 어린시절은 타임머신을 타고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꿈꾸지 않았는가? 새벽을 맞기 위해서는 어둠을 견뎌야 하고 봄을 맞기 위해서는 겨울을 견뎌야 하듯이 인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삶의 거름이 되는 것이다.

JK첼버오케스트라의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는 청소년을 위한 스토리텔링 음악회다. 연주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지혜를 선사하며 클래식의 감동을 전해주고자 기획됐다. 8월 11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 공연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다.

불교계가 이 음악회를 더 주목하는 이유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강령진 단장이 아카사엔터테인먼트를 창립 총괄감독을 맡고 JK첼버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일반 대중을 위해 여는 첫 공연이라는 점이다.

강 단장은 "음악계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김의명 선생님이 이끄는 JK첼버오케스트라와 손잡고 시작하는 첫 공연이네요. JK첼버오케스트라는 청소년 공연으로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거는 기대가 커요. 요즘 청소년들은 왕따 학교폭력 자살 유희 등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아카사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첫공연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진정한 힐링이 되었



JK첼버오케스트라의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8월 11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강령진 단장이 공연기획사 아카사엔터테인먼트를 창립 총괄감독을 맡은 첫 공연이다.

연주자들의 인생오백 무대 등
스토리텔링으로 관중과 교감
지휘 김의명 등 감동의 무대 선사

을 합니다."

공연의 해설은 단순한 음악적 해설을 넘어 '공감과 감동'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유지연 씨의 해설은 색다른 무대를 마련할 것이다. 강 단장은 "음악인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유지연 씨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전해준다면 또다른 공감을 불러 일으킬 거예요."

또 가야금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김태욱(초등 6) 군의 사연도 무대에서 펼쳐진다.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본인

도 장애를 가졌지만 가야금 연주자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전해준다. 강 단장은 이들의 삶이 곧 수행이고 법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과정을 보려하지 않고 화려한 결과만 보잖아요. 그 힘든 과정 속에 정말 진실이 담겨 있는데 말이죠.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인내와 인고의 과정을 거쳐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곧 동체대비의 사상이지요."

이밖에도 영화 앙상블 상영, 연주곡과 관련된 유럽의 장면들이 영상으로 오버랩되는 등 공연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켜 줄 것이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클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악감독과 지휘는 세계적인 음악가 김의명(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씨가 맡았고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솔로연주를 한다. 리코더는 국내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권민석이 참여한다. 여기에 KBS공룡 특별곡제 음악제 연주상을 받은 부윤정과,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콩쿨 2위에 빛나는 이상은(첼로의 첼로 듀엣 협연은 음악회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앞으로 JK첼버오케스트라는 2014년 금호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는 청소년음악회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며 통영국제음악제(2014년) 공연도 참가할 계획이다. 또한 <슈타니파타>에 곡을 붙인 연가곡으로 독일 베를린 연주를 해보는 것도 장기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157-0778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낙산사와 현대작가와의 만남

'관동팔경II-양양 낙산사'

낙산사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낙산사 빈일루에서 열린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지난 5월 박물관서 개최된 '관동팔경II-양양 낙산사' 전시 가운데 현대 작가들의 작품만을 모아 8월 18일까지 순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 예술가들과 강원서학회 회원들이 낙산사를 탐승하고 완성한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시와 그림, 사진으로 형상화된 관음의 성지 낙산사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김광희 외 24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최선주 관장은 "낙산사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감상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은 철학적 미학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출과 월출의 명소로서 낙산사를 새롭게 느끼고 작가들의 섬세한 서정성과 내면세계까지도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기



참여작가 박동국의 '수'

회가 될 것이다. (033) 260-1521

정혜숙 기자

문화재 관람하며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국립경주박물관 1박 2일 무료 프로그램

백룡사 금동약사불, 고선사터 3층석탑, 성덕대왕신종 등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를 관람하며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박 2일'이 8월 11일 열린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문화재 보존수복실, 학예연구실 등 박물관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학예연구사 이지원 씨는 "박물관의 보물창고인 수장고를 견학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박물관장을 비롯한 학예연구사와 대화도 나



누고, 전시실에서 문화재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여학생 25명, 남학생 25명)까지 접수받는다. (054)740-7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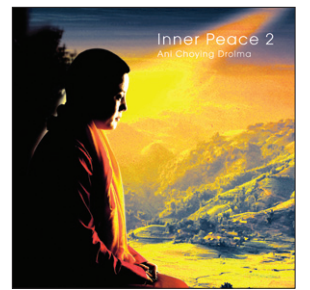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연꽃에서 태어난 스승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초잉 돌마의 '마음의 평화 2집' 발매

아니초잉 돌마의 '마음의 평화 2집'이 한국에서 발매됐다. 전세계에서 100만장 이상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1집에 이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이 앨범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전해줄 것이다.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네팔의 국민가수로 지정되는 비구니 스님 아니 초잉 돌마의 음악은 기도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스님의 찬팅은 우리를 평온과 치유로 인도하며, 마음의 평화와 무한한 환희를 불러일으킨다. '연꽃에서 태어나신 스승님께 드리는 기도' '구루 린포체께 드리는 7행 기도' 등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특히 '연꽃에서 태어나신 스승님께 드리는 기도'는 <티베트 사자의 서> 저자 파드마삼바(Padmasambhava)에게 바치는 기도문이다. 파드마삼바비는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와 지혜의 완벽함을 상징하며, 구루 린포체(Guru Rinpoche: 존귀하신 스승이라는 뜻)로도 불린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월 258mm×265mm

200부 이상 @ 1,000원

2천부 이상 @ 900원

3천부 이상 @ 800원



호수	품명	규격/정가	입시할인가	호수	품명	규격/정가	입시할인가	
1호	기운생동 달마도	6월 (6종) 1,900원	1,300원 (200부 이상)	20호	등승일기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2호	붓다의 매아리		※ 100부 주문시 1,500원	21호	마음이 머무는 곳			
3호	산사로 가는길		※ 2000부 주문시 1,200원	22호	연꽃향기			
4호	연향이 머무는 곳		※ 3000부 주문시 1,100원	23호	천진불			
5호	차 한잔과 휴식			24호	향기로운 꽃			
6호	천진미소			25호	들에도 꽃이 피네			
7호	가람의 향기	12월 (13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26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5종) 800원	650원 (200부 이상)	
8호	관음도			※ 100부 주문시 1,200원	27호			아름다운 꽃
9호	기달마도			※ 2000부 주문시 900원	28호			천진동자
10호	동자승의 하루			※ 3000부 주문시 800원	29호			청정
11호	물소리 바람소리				30호			그리운 산하
12호	반야동자				31호			마음이 핀 연꽃[비닐]
13호	반야심경				32호	마음이 핀 연꽃[홀더]		
14호	부모은중경				33호	신비의 달마도[비닐]		
15호	부처님 마음				34호	신비의 달마도[홀더]		
16호	세계의 명찰				35호	우리도 연꽃같이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17호	연꽃이 있는 풍경				36호	행복한 하루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18호	자비의 향기				37호	행복으로 가는 길	3,000원	2,400원(100부 이상)
19호	차 한잔의 여유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드 등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